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등장은 전통적인 지급 준비 제도와 통화 정책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지급 준비 제도란 시중 은행이 예금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지급 준비금으로 예치하는 제도로, 예금자 인출 요구에 대비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은행의 신용 창조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신용 창조는 은행이 지급 준비금을 제외한 예금을 대출하고 이 대출금이 다시 예금으로 유입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초기 본원 통화보다 더 많은 통화를 창출하는 현상이다. 이때 통화 승수는 지급 준비율의 역수로 계산된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통화로,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소매형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쓰이는 도매형으로 나뉜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계좌형과 토큰형으로 구분된다. CBDC가 도입되면 예금자들이 은행 예금 대신 CBDC를 선호하여 은행 예금이 CBDC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중 은행의 예금 총액 감소로 지급 준비금 규모도 줄어, 지급 준비율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소매형 CBDC가 널리 보급되면 기존 지급 준비 제도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은 CBDC에 대한 별도의 운영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CBDC 보유 한도 설정이나 계층적 이자율 적용(일정 한도 이하에만 높은 이자 제공)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은행 예금의 급격한 이탈을 막아 금융 안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한편, 은행 예금이 CBDC로 대체되면 은행의 자금 조달 기반이 축소되어 대출 여력이 감소하고, 이는 전체 신용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CBDC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낮은 이자를 제공하면 대규모 예금 이탈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CBDC 도입은 중앙은행의 역할과 통화 정책 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재할인율 조정이나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해왔다. 그러나 CBDC 환경에서는 CBDC 이자율 자체가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CBDC 발행량과 보유 한도 조절을 통해 유동성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중앙은행은 시장 규율자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 시장 참여자로 변모할 가능성이 열린다. 중국의 e-CNY는 소매형으로 이자 없이 운영 중이며,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설계 시 보유 한도 도입을 검토하며 예금 이탈 리스크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바하마의 ‘샌드 달러’는 금융 포용성 증대에 중점을 둔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CBDC 도입은 지급 준비 제도의 기능적 전환을

촉진하고, 신용 창조 메커니즘과 통화 정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잠재력을 지닌다. 다만, 적절한 설계와 정책 조합을 통해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통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CBDC는 발행 주체에 따라 소매형과 도매형으로, 기술적 구현 방식에 따라 계좌형과 토큰형으로 나뉜다.
- ② 전통적인 지급 준비 제도는 예금자 보호와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이라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 ③ CBDC에 대한 이자율 조정은 중앙은행이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화 정책 수단으로 여겨진다.
- ④ 은행 예금이 CBDC로 대체되더라도, 중앙은행이 CBDC에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⑤ 중국, 유럽중앙은행, 바하마 등은 각기 다른 정책 목표와 운영 방식을 적용하여 CBDC를 실험하거나 도입하고 있다.

2. 위글의 논지를 바탕으로 CBDC 도입에 따른 지급 준비 제도 및 통화 정책의 변화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BDC가 은행 예금을 상당 부분 대체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지급 준비율 정책만으로 통화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 ② 중앙은행이 CBDC에 대한 직접적인 이자율 정책이나 발행량 조절 권한을 갖게 되면, 이는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를 단축시켜 정책 효과의 시차를 줄일 수 있다.
- ③ 소매형 CBDC가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지급 준비 제도의 기능이 약화될 경우,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을 위해 시중 은행에 대한 새로운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
- ④ CBDC 도입은 은행의 신용 창조 능력 약화를 심화시키며, 이는 이자 지급 구조나 보유 한도 설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다.
- ⑤ CBDC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중앙은행의 직접적 시장 참여자 역할이 강화되면, 재할인율 조정이나 공개 시장 조작과 같은 전통적인 간접적 통화 정책 수단은 그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국의 중앙은행은 소매형 CBDC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A국의 지급 준비율은 20%이고, 본원 통화는 50억 유로이며, 시중 은행의 총예금은 400억 유로이다. 경제 분석가들은 CBDC가 도입될 경우, 시중 은행 예금의 10%가 CBDC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한다. A국 중앙은행은 이로 인한 예금 이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CBDC 보유 한도를 설정하고, CBDC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 ① CBDC 도입 후 예상대로 예금이 이전된다면 A국 시중 은행의 총예금은 360억 유로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지급 준비금은 80억 유로에서 72억 유로로 줄어든 것이다.
- ② A국 중앙은행이 CBDC에 시중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면, 예금의 CBDC로의 이전 규모는 예상치인 10%보다 감소할 것이다.
- ③ <보기>의 A국에서 CBDC 도입 전 통화 승수는 5이며, 이는 본원 통화 50억 유로가 최대 200억 유로의 통화를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④ A국 중앙은행이 CBDC 보유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CBDC에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 이탈 위험은 <보기>의 고려 중인 방안보다 항상 더 클 것이다.
- ⑤ CBDC 도입으로 인해 시중 은행의 지급 준비금 규모가 현재보다 10% 감소한다면, 지급 준비율이 변하지 않는 한 은행의 신용 창조 능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4. <보기>는 CBDC 도입에 관한 가상의 정책 토론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각 정책 담당자의 발언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A 정책 담당자: CBDC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보유 한도도 설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이자가 없으면 예금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고, 한도가 없으면 금융 포용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B 정책 담당자: CBDC에 시중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앙은행이 이자율 조절을 통해 통화량을 직접 조절할 수 있어 통화 정책의 효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C 정책 담당자: CBDC는 소액에 대해서만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 금액 이상에는 낮은 이자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계층적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 보유 한도를 설정하여 예금 이탈을 제한해야 합니다.

- ① A의 주장은 이자가 없는 CBDC가 예금 이탈을 줄인다는 점

에서는 지문 내용과 부합하지만, 보유 한도가 없을 경우 예금 이탈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② B의 주장은 CBDC 이자율이 새로운 통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문 내용과 부합하지만, 높은 이자 지급이 통화량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지문의 내용과 상충한다.
- ③ C의 주장은 계층적 이자 구조와 최대 보유 한도가 예금 이탈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문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며, 가장 이상적인 CBDC 설계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④ A와 C의 주장은 모두 지문에서 언급된 주요국 CBDC 사례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B의 주장은 어떤 국가의 사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어렵다.
- ⑤ B와 C의 주장은 모두 CBDC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규율적 역할에서 적극적 시장 참여자로 변화시킨다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만, A의 주장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해설]

측정 의도: 지문에 제시된 CBDC의 개념, 유형, 지급 준비 제도, 통화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근거: 셋째 단락에서 “은행 예금이 CBDC로 대체되면 은행의 자금 조달 기반이 축소되어 대출 여력이 감소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어서 “CBDC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낮은 이자를 제공하면 대규모 예금 이탈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CBDC에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은행 예금 이탈이 심화되어 대출 여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은행의 대출 여력이 CBDC 도입으로 인한 예금 감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④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분석:

- ① 둘째 단락에서 CBDC의 유형을 발행 주체와 기술적 구현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첫째 단락에서 지급 준비 제도의 기능을 예금자 인출 요구 대비 및 통화량 조절로 설명하고 있다.
- ③ 넷째 단락에서 CBDC 이자율이 새로운 통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 ⑤ 넷째 단락에서 중국, 유럽중앙은행, 바하마의 CBDC 사례와 그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매력적 오답 포인트: ④ 선택지는 CBDC의 이자율과 은행 대출 여력 간의 관계를 지문 내용과 반대로 제시하여 혼동을 유발한다.

2. 정답: ④

[해설]

측정 의도: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CBDC 도입이 가져올 미래의 금융 환경 변화를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나 정책적 대응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정답 근거: 셋째 단락에서 “CBDC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낮은 이자를 제공하면 대규모 예금 이탈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CBDC 설계 방식(이자 지급 구조, 보유 한도 등)을 통해 은행의 신용 창조 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은행의 신용 창조 능력 약화가 “이자 지급 구조나 보유 한도 설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단정하는 ④는 지문의 논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 분석:① 셋째 단락에서 예금 감소로 인한 지급 준비금 규모 축소와 지급 준비율 정책 실효성 약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추론이다.
② 넷째 단락에서 CBDC 이자율이나 발행량 조절 등이 새로운 직접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정책 전달 경로

단축 및 시차 감소를 긍정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③ 셋째 단락에서 기존 지급 준비 제도의 역할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금융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유동성 공급 메커니즘 마련 등)은 합리적인 추론이다.
⑤ 넷째 단락에서 CBDC 도입으로 중앙은행의 직접적 시장 참여자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것이 전통적 간접 통화 정책 수단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정책 수단이 기존 수단을 보완하거나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매력적 오답 포인트: ④는 “심화시키며”,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지문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 오답으로 유도한다. ⑤ 역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혼동을 줄 수 있다.

3. 정답: ①

[해설]

측정 의도: 지문의 핵심 개념(지급 준비율, 통화 승수, 신용 창조, CBDC의 영향 등)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수치가 주어진 상황에 적용하여 결과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정답 근거:1단계 (CBDC 도입 전 지급 준비금 계산): 총예금 400억 유로 × 지급 준비율 20%=80억 유로.
2단계 (CBDC 도입 후 예상 총예금 계산): 예금의 10%가 CBDC로 이전되므로, 은행 총예금은 400억 유로×(1-0.1)=360억 유로로 감소한다.
3단계 (CBDC 도입 후 예상 지급 준비금 계산): 감소된 총예금 360억 유로 × 지급 준비율 20%=72억 유로.
따라서 ①의 “CBDC 도입 후 예상대로 예금이 이전된다면 A국 시중 은행의 총예금은 360억 유로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지급 준비금은 80억 유로에서 72억 유로로 줄어든 것이다.”라는 진술은 <보기>의 정보와 지문의 원리를 정확히 적용한 것이다.

오답 분석:② 지문에 따르면 CBDC에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 은행 예금에서 CBDC로의 이전이 더 활발해질 수 있으므로, 예상치인 10%보다 이전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③ A국의 지급 준비율은 20%이므로, 통화 승수는 1/0.2=5이다. 본원 통화가 50억 유로이므로, CBDC 도입 전 최대 통화 창출 가능액은 50억 유로 ×5=250억 유로이다. “최대 200억 유로”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CBDC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 이탈 위험은 제한될 수 있으나, 보유 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대규모 예금 이탈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보기>의 고려 중인 방안은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려는 것이므로, 이 중 하나라도 시행하지 않으면 위험이 커질 수 있으나 ‘항상 더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제 상황 등 다른 변수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지급 준비금 규모가 감소한다는 것은 은행의 대출 재원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므로, 지급 준비율이 동일하더라도 신용 창조 능력은 약화된다.
매력적 오답 포인트: ②는 CBDC 이자율과 예금 이전 규모 간의

관계를 혼동하도록 유도한다. ③은 통화 승수 계산이나 최대 통화량 계산에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 ④의 '항상'이라는 표현은 수험생에게 선부른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

4. 정답: ①

[해설]

측정 의도: 지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CBDC 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각 주장의 타당성을 지문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정답 근거:A 정책 담당자는 CBDC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셋째 단락의 "CBDC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낮은 이자를 제공하면 대규모 예금 이탈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내용과 부합한다. 그러나 보유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문에서 유럽중앙은행이 보유 한도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가 "예금 이탈 리스크 완화"임을 언급하고 있으므로(넷째 단락), 보유 한도가 없을 경우 오히려 대규모 예금 이탈로 금융 안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①이 가장 적절한 평가이다.

오답 분석:② B의 주장 중 "CBDC에 시중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지문의 셋째 단락 내용("CBDC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낮은 이자를 제공하면 대규모 예금 이탈 위험은 제한적")과 상충될 수 있다. 높은 이자는 오히려 예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CBDC 이자율이 새로운 통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넷째 단락과 부합하지만, '높은 이자 지급이 통화량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단정은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지지되지 않으며, 오히려 금융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매력적 오답: B의 주장의 일부는 지문과 부합하는 듯 보이나, 핵심 전제에서 상충된다.)

③ C의 주장은 지문에서 언급된 계층적 이자율 적용(셋째 단락) 및 보유 한도 설정(셋째, 넷째 단락)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CBDC 설계 방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문은 다양한 정책 조합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각국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 (매력적 오답: 지문 내용과 유사해 보이나, '완전히 일치하며, 가장 이상적'이라는 표현이 단정적이다.)

④ A의 주장 중 '이자 미지급'은 중국 e-CNY 사례(넷째 단락)와 부합한다. C의 주장 중 '보유 한도 설정' 역시 유럽중앙은행의 검토 사항(넷째 단락)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A와 C의 주장이 주요국 사례와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⑤ B와 C의 주장이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와 관련될 수 있으나, B의 높은 이자 지급 전략은 지문의 다른 내용과 상충될 수 있다. A의 주장은 CBDC 자체의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앙은행 역할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매력적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지문의 내용과 일부 부합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어 수험생을 혼동시킬 수 있다. 각 선택지의 모

든 구성 요소가 지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혹은 과도한 일반화나 단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